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경기 둔화, 중국 수출주도 회복에 타격
- NYT: 미 침체 피하려면 소비 지출이 핵심

[미국 금융]

- FinanceYahoo: 월가 이코노미스트들,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돼”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2년만에 최저... 6.55%로
- Bloomberg: 미국인들, 주택 담보 신용 대출(HELOC) 이용 증가

[에너지]

- Bloomberg: 해운사 머스크, LNG 선박 주문 늘리며 청정 에너지 목표 늦춰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회사 입장에서 해고 비용 많이 든다
- WSJ:소피파이, 2분기 매출 예상보다 크게 상승
- Bloomberg: 혼다, 기록적인 수익 달성... 미 판매 확대와 엔화 약세로
- WSJ: 디즈니, 스트리밍에선 수익... 테마 파크에서는 부진
- WSJ: CVS,재고 간소화와 빠른 이동 추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Slowdown Imperils China's Path to Export-Driven Recovery

미 경기 둔화, 중국 수출주도 회복에 타격

- 중국의 가시적인 성장을 목표인 5% 달성에 핵심적인 수출 엔진이 미국의 수요 둔화로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소비 경제를 일으키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 해외 수출은 지난 6개월간 중국의 17조달러 규모의 경제에 보기 드문 긍정적인 현상으로 국내 소비 둔화와 부동산 슬럼프로 부터 중국 경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 그런데 어제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3개월동안 가속화 된 후 여전히 달러 기준으로 7월 수출 성장은 작년 동월에 비해 7%에 그쳤다.

- 특히 Pantheon Macroeconomic에 따르면 시즌 조정치로 월간 대미 수출 성장은 약간 감소했다.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데 미국의 경기 및 수요 둔화는 전세계에 압박을 주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제한시키고 있다.

Bloomberg 기사

NYT: To Avoid a Recession, Consumer Spending Is Key 미 침체 피하려면 소비 지출이 핵심

-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소지 지출은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해 주었다. 7월에 채용둔화와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다. 임금 상승이 둔화되었지만 임금은 올라가고 있고 해고도 여전히 낮은 상태다. 그러나 노동 시장 둔화가 가속화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 이미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고물가와 그들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는 고금리로 힘든 상황이다. 신용카드 연체률은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늘고 있다. 팬데믹때 저축액은 줄어들고 지난 6월 현재 미국인들은 세후 소득의 3.4%만 저축해 작년 동월 4.8%에 비해 줄어들었다.
- 주요 소매 체인들은 소비자들은 신중한 지출을 보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부 가격을 낮추고 있고 다른 품목을 늘리고 있다. 맥도널드 관계자는 “저소득 소비자들이 구매 보다는 집에서 식사하는 등 돈을 아끼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 제품과 가구 등 높은 가격대 품목 생산업체들도 이같은 소비 패턴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이것이 소비 지출을 제한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NYT 기사

Bloomberg: Goldman CEO Solomon Says Fed Will Forgo Emergency Cut Despite Weak Jobs Data

골드만 CEO, “일자리 약세지만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 안한다”

- 골드만삭스의 CEO인 David Solomon은 예측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연준이 9월 FOMC 회의 전에 ‘긴급 금리 인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미 경제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아마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추가로 현재 경제 지표를 볼때 연준은 아마도 가을에 한두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FinaceYahoo: Wall Street economists say investor fears about recession are overblown****월가 이코노미스트들,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돼”**

- 이번주의 7월 일자리 보고서에 대한 시장은 반응은 연준이 최근 7월 회의에서 가장 높은 현행 금리를 동결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 현재 일부 투자자들 세계에서 화두는 금리 인하 시점에서 미 경기 침체 진입 시점이 언제인가로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과 주식 전략가들은 “최근 경제 약세 지표로 인해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 수일 동안 대량 매도세를 보인 시장의 반응은 과민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 Apollo Global Management chief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Torsten Sløk는 “미 경제가 침체나 침체로 진입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FinanceYahoo 기사

[주택]**Bloomberg: US Mortgage Rates Tumble to 6.55% in Biggest Drop in Two Years****미 모기지율 2년만에 최저... 6.55%로**

- 30년 고정 모기지가 지난주에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건수도 꺾충 뛰었다.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끝나는 주에 30년 고정 모기지 거래는 27 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한 6.55% 이자율로 거래됐다.
- 5년 만기 조정 모기지율은 21베이시스 포인트 줄어든 5.91%로 올해 가장 낮았다.
- 지난주 재융자 지수는 16% 늘어나 지난 2년래 가장 높은 661.4를 기록했으며 주택 구매 모기지 신청자수는 0.8% 증가했다. 이 두가지를 포함한 전체 신청자 지수는 지난주에 6.9%로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re Americans Are Tapping Home Equity Credit Lines, NY Fed Says

미국인들, 주택 담보 신용 대출(HELOC) 이용 증가

-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가치 상승을 활용하면서도 낮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 담보 신용 대출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어제 화요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기별 가계 부채 및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이후 주택 담보 신용 대출액이 20% 증가하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 반면에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2분기에는 모기지 신규 대출 건수는 감소했다.
- 전체 소비자 부채 중 연체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변동이 없었지만, 자동차 및 신용카드 대출의 신규 연체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 2분기 모기지 부채는 2021년과 2022년 평균 9,0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3,740억 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담보 대출액은 3,800억 달러로 9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Maersk Orders LNG Ships and Takes a Detour on Its Green Goals 해운사 머스크, LNG 선박 주문 늘리며 청정 에너지 목표 늦춰

-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해운사인 A.P. Moller-Maersk는 당초 목표로 했던 무탄소 연료 선박 사용을 해지하고 있다.
- 오히려 탄소 기반 추진 연료인 액화 천연가스로 운항하는 60대의 새로운 선박을 주문했다.
- 이는 당초 CEO가 약속했던 LNG 기반 선박을 피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메탄올 기반의 선박을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과는 거리가 먼 조치다. 이들 신규 선박들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달되며 금액은 1억2천만불로 예상된다.
- 이 회사는 4백30만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총 7백대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The True Cost of Layoffs 회사 입장에서 해고 비용 많이 든다

- 메타 플랫폼은 지난 2022년 1만1천명의 직원을 해고 하면서 퇴직금으로 9억 7천5백만불을 지불했다. 한명당 비용은 8만8천불이다.
- 회사 입장에서 해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퇴직금 비용 이상의 재정적인 지출이 소요된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고 뒤에는 남이 있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적어도 수개월 동안 떨어진다. 왜냐하면 불안과 사기 저하 때문이다.
- 그리고 더 많은 직원들이 해고될 경우 새로운 채용과 재교육 비용이 소요된다. 실업보험 세금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해고 전이나 후에 차별 소송을 회사가 당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비용이 든다.
- 회사가 10% 다운사이징 할경우 자발적인 이직률은 50% 상승한다. 1만명 규모의 회사인 경우 이같은 이직자를 채우는데 7천5백만불이 소요된다.

Bloomberg 기사

WSJ: Shopify Tops Views in Quarter and Sees Growth Accelerating 소피파이, 2분기 매출 예상보다 크게 상승

- 이 회사는 고객수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오타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온라인 고객을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오늘 수요일에 2분기 매출이 2억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은 2억1천만이었다.
- 이같은 매출 증가는 고객들의 사용 증가와 고객 사용 프로그램 가격이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Honda Profit Rises to Record on Strong US Sales, Weak Yen 혼다, 기록적인 수익 달성... 미 판매 확대와 엔화 약세로

- 혼다 모터의 분기 영업이익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의 판매 성과가 중국에서의 둔화를 극복하면서 큰 수익을 올린 것이다.
- 혼다는 6월까지의 2분기 수익은 연간 비율로 23% 증가, 33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에서의 견조한 수요와 인도와 브라질에서 매출 성장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한 엔저 현상도 한몫했다.

Bloomberg 기사

WSJ: Disney Posts First-Ever Streaming Profit, Warns of Pressure on Theme-Parks Business**디즈니, 스트리밍에선 수익... 테마파크에서는 부진**

- 디즈니는 지난 분기에 스트리밍과 영화 비즈니스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려 테마파크의 실적 저조를 만회했다.
- 스트리밍 분야에서 63억8천불 매출에 영업 수입을 4천7백만불 기록했다.
- 테마파크와 유람선 부분에서는 매출이 83억8천만불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영업수입은 2.3% 감소한 22억2천만불을 기록했다. 비용 증가와 소비 둔화 탓이다.

WSJ 기사

WSJ: CVS Aims to Make Inventories Leaner, Move Faster**CVS,재고 간소화와 빠른 이동 추진**

- CVS 헬스는 유통 네트워크를 개편하고 있다. 제품을 매장과 온라인에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 로드아일랜드 Woonsocket에 본부를 둔 이 회사는 33개의 창고를 폐쇄했으며 가장 큰 유통센터중 한개를 자동화했으며 올 가을에 큰 규모의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빌딩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수백만달러를 들여 비용 절감과 수익 마진 개선을 위한 유통망 업그레이드 계획은 일환이다.

WSJ 기사

월가 "연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해야"...긴급 인하엔 "글세"**골드만 CEO "미 경기침체 없을 듯...증시 급락은 건전한 조정"**

최근 금융시장 혼란 이후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경기침체 우려를 잠재우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도 최근 상승에 따른 건전한 조정"으로 진단했다...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